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4~36절)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지역



영적전쟁

얼마 전, 웬만해서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는 장모님께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분쟁에 관한 뉴스를 보시고 걱정되어 연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접하시고 핵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을지 모릅니다. 두 나라 간의 분쟁은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는지, 인도 친구들이 전쟁 걱정을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 은사도 학교에서 공습경보에 따른 대피훈련을 한다고 하더군요.

세계 곳곳에서 여러 전쟁과 다툼들이 있지만 인도에서의 싸움들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은 종교전쟁이고 영적싸움입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는 종교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나뉩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렇게 갈라진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도 각자 나누어 점령하고 있는 카슈미르를 두고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이 집권 후, 인도는 힌두교 국가의 정체성을 더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을 박해 할 뿐 아니라, 힌두교로 역 개종하려 하고, 개종금지법을 통해 스기나 기독교인들의 전도나 개종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스기활동은 위축되고, 현지 기독교인들도 그 핍박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모양의 영적싸움들이 곳곳마다 집집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일부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몇몇 예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아지지 않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의 반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패배감과 무력감에 익숙해져갈 때쯤, 주님의 역사하심의 흔적들은 우리를 다시 눈 뜨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곳 인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나눔의 통로 스기센터

스기센터를 연지 반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현지인들과의 접촉과 관계형성의 통로요, 나아가 전도와 스기사역으로서의 역할에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고기 입질하듯 그 반응이 너무 더더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모으고 가르치고 함께 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은 그들과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어수업



문화사역



카페 · 한국음식점



거룩한 책 나눔

홍익교회 가족들의 후원으로 스기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교회와 개인 단체들에 나누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 스기지에 베풀어 주신 가족들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다고 모셔만 놓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여 주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책결상 등 집기 구입

센터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책결상을 후원해주신 기호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부는 책결상 구입에, 또 일부는 카페에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뭐 좀 하려니 금전이 필요하고, 이럴 때 대개의 기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고자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사가 성도님의 손을 통해 씨 뿌려졌습니다!

가족 동정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제 아내가 가슴 쪽에 질환이 있어서 진료와 치료를 위해 이번에 고국에 들어갑니다.

딸 은사는 이제 10학년이 되어서 보드시험을 쳐야합니다. 공부를 잘 하는데 그래도 긴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현지 교회자나 사모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모를 잘 감당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하)

1.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화센터를 찾고, 복음을 접하고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2. 한국문화센터를 NGO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서류작업들이 순조롭고 조속히 잘 되어지도록
3. 슬럼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함께 동역할 사모자들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함께 하고 주의 일에 헌신할 사모자들을 보내달라고
4. 아내(양운영)가 가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료와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갑니다. 주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위해
5.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면 좀 나으려나 했는데, 기사가 환영받는 곳은 없는 모양입니다. 어떤 비자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네요. 늘 그래왔듯 올해도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동역자님들을 통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를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